

轉換期の 世界經濟秩序

韓 基 春*

……………〈目 次〉……………	
I. 序	理想
II. 國際經濟制度上的 問題	III. 世界經濟運營上的 諸問題
1. 國際通貨制度의 改革方向 과 그 問題點	1. 資源問題의 顯在化
2. 國際金融, 石油「달러」還 流 및 援助問題	2. 世界不況의 深化
3. 世界通商秩序의 現實과	3. 國際的인 「인플레이션」의 蔓 延
	IV. 結 語

I. 序

우리는 오늘날 國內外的으로 分明히 새로운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國內經濟面에서 輕工業爲主의 工業化로 부터 重化學工業爲主의 開發로, 成長一邊倒의 政策으로 부터 安定과 分配를 考慮치 않으면 안 될 政策으로, 그리고 市場과 資源을 海外에 크게 依存해온 經濟로 부터 食糧과 投資財源을 可能한 限 國內經濟에서 充當해야 할 自立經濟의 基盤을 이젠 정말 鞏固히 해야 할 課題를 안고 있어 現在 우리나라 經濟는 그야말로 一大轉換期를 當面하고 있다. 이러한 轉換期를 맞은 우리나라 經濟에 대한 對策은 轉換期를 맞은 世界經濟의 새로운 秩序와 앞으로 展望되는 國際經濟與件變動과 매우 密接한 關聯性을 띠고 있어 轉換局面에 접어 든 世界經濟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나라 經濟는 成長目標을 年 8%로, 60억「달러」 輸出達成을 計劃하고 있는바 이렇게 해도 1975年末 우리나라 經濟規模는 國民總生產(GNP)으로 自由世界의 約 0.3%, 輸出로 보아 全世界 總輸入額의 1.15%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小規模의 經濟로 UN會員國만으로도 135個에 이르는 世界經濟속의 一葉片舟에 不過하다. 따라서 世界經濟가 安定되고 順坦하면 모르되 風浪이 일고 波濤가 높아지면 바다속의 一葉片舟格인 經濟로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더우기 國內的인 賦存資源이 殆無하고 아직도 한 國家經

* 延世大學校商經大學 敎授

濟單位로서 狹小한 國內市場으로서 資源을 거의 全的으로 海外에 依存하고 販路를 外國市場에 크게 期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世界經濟에 일고 있는 激浪속에 겪어야 할 어려움이란 그만큼 激甚한 것이라고 하겠다.

世界經濟는 오늘날 지난 第2次大戰 以後 四半世紀에 걸쳐 維持해온 經濟秩序가 거의 完全히 崩壞되고 새로운 秩序를 構築하기 위한 過渡期에 놓여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世界經濟秩序란 크게 制度上的 秩序와 運營上的 秩序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前者는 國際通貨制度, 國際金融制度和 國際通商制度를 들 수 있으며 後者는 人口와 資源問題, 世界景氣의 推移, 「인플레이션」의 問題 등을 들 수 있다. 事實上 이들 制度面의 問題와 運營面의 問題들 間에는 相互關聯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有機的인 作用關係下에 있어 提起되는 問題에 관한 因果關係를 分明히 하기 어려운 態도 있다. 또한 이들 世界經濟의 諸問題는 아직도 解決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混亂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에 本考에서는 이러한 相互因果關係나 그 解法에 관한 論證없이 大部分의 경우 問題의 提起에 그치게 되는 點을 序頭에 밝혀두고자 한다.

그럼 以下에서는 轉換期의 世界經濟의 諸問題를 制度的인 側面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II. 國際經濟制度上的 問題

國民經濟나 國際經濟를 莫論하고 經濟制度上的 가장 重要한 問題의 세가지는 「돈」과 「財貨와 用役」 그리고 이들 兩者를 「링크」시키는 「金融」이다. 즉 貨幣經濟와 實物經濟, 그리고 이 兩者間의 關係를 有機的이고도 圓滑하게 맺어 주는 金融의 問題들인 바, 國際經濟로 말할 때 이들은 첫째 國際通貨體制, 둘째 國際通商體制 그리고 세째 國際金融制度를 말한다. 우선 轉換期에 들어선 國際通貨制度부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國際通貨制度的 改革方向과 그 問題點

世界大戰의 終戰1年前인 1944년에 美洲 New Hampshire州의 Bretton Woods에서 44個國이 모여 平和속의 世界經濟의 繁榮을 위해 通貨面에서 秩序를 整備한 制度가 바로 IMF 體制였다. 30년이 지난 1974年 現在 IMF의 會員國은 126個國으로 늘어났다. 主要非會員國으로서는 蘇聯, 中共, 瑞西, 「루마니아」와 「유고스라비아」를 除外한 東歐諸國등 뿐이다. 이와 같이 會員數도 많이 늘어났지만 國際間의 相對的인 經濟力도 많이 달라져

戰後의 莫強한 經濟力을 背景으로 한 美國의 地位는 相對的으로 低下되는데 反하여 西歐諸國 특히 EEC會員國과 日本의 地位가 上昇되는 世界情勢의 變化속에 國際通貨體제도 根本的인 變革을 強要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옛날 44個國의 會同과는 달리 125個國의 會同이란 相互間 利害關係를 달리하는 가운데 새로운 通貨秩序의 整備方向이 各國의 國內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크기 때문에 新通貨體制의 誕生은 그만큼 陣痛期가 오래도록 繼續되고 있다. 新通貨體制로의 險峻한 旅程의 出發은 1971年 8月 15日의 美國의 金兌換停止宣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로부터 滿 3年을 넘긴 지난해 9月의 第29次 IMF總會에서도 完結을 보지 못하고 있다. 會員國數의 增加와 會員國間의 經濟關係의 複雜性을 勘案한다면 어느 意味에서는 3年이란 時間이 길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른다. 특히 1973年 10月의 第4次 中東戰爭의 勃發을 契機로 石油價의 引上措置에 따른 世界的인 波動은 여러 局面으로 波及되어 國際通貨制度의 長期的인 改革은 다시 뒤로 미루어 놓고 IMF는 우선 暫定的으로 取하게 될 短期的 諸般措置를 講究中에 있으며 事實上 相當한 進展을 보여주고 있다.

國內的이든 國際的이든 通貨란 가장 流動的인 資産의 하나라 實物經濟의 去來量에 比等한 充分한 供給이 圓滑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다음으로 그 價値安定의 問題이며 끝으로 分配調整의 問題라 하겠다. 이를 國際通貨問題로 돌려서 말하자면 첫째는 流動性供給(liquidity)의 問題이며, 둘째는 交換性(convertibility). 셋째로는 國際收支의 調整問題(adjustment mechanism)라 하겠다.

1) 流動性

流動性供給問題는 IMF 會員國 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交易國의 數가 늘어나고 또 이들 各國의 貿易去來量이 늘어 남에 따라 應分의 國際流動性이 圓滑히 供給되어야 하나 實質的인 金本位制下の 金の 年生産量은 1974年 推定值로 兩亞聯邦의 729%을 爲始하여 1,353%으로 이는 全世界의 各國이 保有하고 있는 金保有量 35,800%의 不過 3.78%밖에 되지 않아 年年 크게 增大되고 있는 世界交易量을 뒷받침해 줄 수가 없다.⁽¹⁾ 共產圈을 除外한 世界交易은 1973年 輸入額(CIF)으로 5,210억「달러」, 輸出額(FOB)으로는 5,100억「달러」에 이르며 1971~73年의 年平均 伸長率은 各各 21.4%, 22.4%나 되며 輸出入財貨의 價格上昇現象이 激甚했었고 資源波動을 겪었던 1973年을 除外한 1971~72年의 兩年の 平均成長率은 輸入 14.4%, 輸出 15.2%나 된다. 이에는 世界的인 「인플레이션」 昂騰

(1) Newsweek誌 1974年 12月 23日刊, p.34. 同誌는 Oxford大學 Michael Kaser教授의 推定值에 의한 것임.

에 의한 輸出入價格上昇과 美國「달러」貨의 減價에 의한 各目上昇分도 包含되고 있으나 이를 勘案하더라도 前述한 金生産量의 年 3%로서는 各國의 準備資産으로서 金에 대한 保有需要는 姑捨하고서라도 去來需要에도 充當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國際流動性的 絶對不足의 問題이며 이는 다시 金을 代身한 「달러」貨의 過剩性에서 緣由되는 不信認性を 招來케 되었다. 이에 救濟策으로 特別引出權(SDR)의 創設을 보게 되었다.

2) 交換性

다음으로 交換性的 問題는 새로운 國際通貨로서의 SDR의 創設과 配定은 SDR의 換價性和 그 信認性的 問題를 提起케 되는 바 SDR을 金과는 隔離시켜 그 自體를 評價의 基準으로 하고 美國「달러」貨에 代置할 準備資産으로서 그 口實을 다 할 수 있는지의 與否는 앞으로의 世界經濟가 實驗으로 判가름 지워야 할 宿題라고 하겠다. 지난 1月中旬의 IMF Washington總會에서는 金公定價格을 廢止했으며 IMF 出資分의 25%에 대한 金納入義務도 따라서 廢止하여 事實上 貨幣로서의 金の 機能은 이젠 終焉된 셈이다. 金の 公定價格이란 貨幣로서의 金の 價格이기 때문에 이의 廢止는 앞으로 各國이 가지고 있는 金準備는 적어도 本位貨幣로서의 役割은 다 한 셈이며 하나의 商品으로서 機能단을 가지게 된다.

SDR에 대한 信認性を 높이고 「달러」에 代置할 第1準備資産으로서 그 活用을 넓히기 위하여는 SDR의 價値를 安定시키고 또한 그 收益率을 保障하는 것이 問題였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各國은 中心的 準備資産으로서의 SDR로 自國通貨殘高의 決濟를 행하게 된다. 그러나 交換性的 義務의 範圍, 그 原則에 適用되어야 할 彈力的인 運營方針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多角度로 檢討되어야 한다.

SDR의 價値設定問題는 이른바 「바스켓트」(basket)方式을 採擇하여 世界主要 16個國通貨의 加重平均値와 連動시키기로 하고 그 選定基準은 1968-72年の 5個年間을 통하여 世界輸出의 1%以上の 比重을 占有하는 나라로 하고 있으며 適用될 加重値는 美國의 「달러」가 33.3%, 西獨의 DM貨가 12.5%, 英國의 磅貨가 9.0%, 圓과 「프랑」이 各各 7.5%씩 이중 美國「달러」貨가 꼭 3分之 1이나 되는 바 이래도 SDR의 價値安定을 期할 수 있을런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問題라 하겠다. SDR의 IMF 預置金利도 現實的인 妥當한 水準까지 引上도록 되어 從前의 1.5%에서 5% 水準까지는 오르고 있으나 美, 英, 西獨, 佛 그리고 日本의 政府短期證券金利의 加重平均을 그대로 基準으로 하고 있는바 앞으로 一定한 限度를 넘어 실 때에는 再調整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果然 어떻게 金利를 決定하여 SDR保有의 魅力을 높일 수 있느냐가 問題라 하겠다.

3) 調整機構

끝으로 國際收支의 調整問題인 바當初부터 IMF가 그理想을 自由外換制度下의 固定換率制度를 追求해 왔었으며 創設以來 約 4半世紀 동안에는 그런대로 固定換率制度로 成功을 크게 거두었다. 그러나 交換性이 問題가 되는 「달러」貨가 世界各國에 多額 머물러 있고 投機的인 巨額에 達하는 資金의 國際間移動이 쉽사리 이루어지고 있을 때 現實적으로 適正換率을 摸索하고 維持할 수는 없게 되었다. 새로운 通貨制度下에서는 自由外換去來下의 固定換率制로의 復歸를 理想⁽²⁾으로 한 채 暫定的으로는 自由外換去來下에 變動換率制를 採擇하게 되었다. 1971年 12月の 「스미소니안」(Smithsonian)協定以來 1972年 6月の 「파운드」貨의 變動換率制移行과 더불어 世界の 主要國 通貨는 「후로트」(float)되고 있는 바 앞으로 이 變動換率制度를 어떻게 運營하여 國際收支의 調整을 期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라 하겠다.

「후로트」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은 IMF 理事會가 決定하여 公表하고 있으나 同指針의 目的은 各國으로 하여금 政府에 의한 外換市場介入操作에 關하여 一定한 規定을 設定하여 이에 따른 介入操作으로 外換時勢의 安定을 期하는데 있다. 換率의 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서는 目標圈을 設定하고 現實인 換率이 이 目標圈을 벗어날 때 各國으로 하여금 換率을 그 圈內로 安定시키겠끔 積極인 介入이 認定되며 또한 目標圈을 벗어난 가운데 外貨準備를 激增시키거나 激減시켜도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目標圈의 設定이란 各國의 外貨準備의 規模와 그 水準의 動向이 앞으로의 IMF 介入의 基準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 外貨準備의 動向은 앞으로 國際收支調整의 主要한 客觀的 指標로 삼게 될 것으로 믿어지며 보다 具體的인 公的準備指標體系의 構成과 國際收支調整政策에 不應한 나라에 대한 膺懲策을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어떤 段階로 取할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할 일로 믿어진다. 여러가지 壓力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金融壓力, 貿易去來制限壓力 등이 學論되고 있다.

이와 같이 轉換期에 對處한 國際通貨改革은 차츰 具體化되어 이제 實行段階에 이르렀으나 最大의 問題點은 舊制度에 內在하고 있는 「달러」貨에 대한 여러가지 非對稱性을 除去하고 事實上的 「달러」貨本位體制를 벗어나야 하나 石油危機를 통하여 「달러」貨의 國際

(2) 最近 이 理想論에 대하여서는 美國學界 一部에서는 國際資本移動問題와 더불어 反論이 提起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傳統的이고 普遍的인 理論으로서 C.P. Kindleberger를 따르기로 한다. 反論에 대하여서는 F. Modigliani,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Fixed Parities and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in *Essays in Honour of Paul Rosenstein-Rodan* ed. by J. Bhagwati and R.S. Eckaus, MIT Press, 1973 參照바람.

金融上の地位는 오히려 強化되고 있어 形式的이고 對稱的인 制度에 그칠 念慮가 없지 않다는 點이라 하겠다.

2. 國際金融, 石油「달러」 運流 및 援助問題

深化一路에 있는 先進國과 後進國間의 經濟隔差를 좁히고 後發한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經濟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서는 社會間接資本의 不足과 그밖의 生産資本設備의 不足 등이 主要原因으로 擡頭되고 있어 이러한 面에서 開發途上國의 스스로의 自助努力과 이에 못지않게 幅넓은 國際金融과 先進國으로 부터의 援助가 要請되어 왔다.

1960年代만 하더라도 開發途上國은 UNCTAD를 基盤으로 하여 經濟開發援助, 貿易, 國際金融 등의 諸分野에서 個別的인 要求와 讓步로 一貫해 왔으나 이것만으로서는 經濟開發의 加速化에 限界가 있기 때문에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國際的인 開發金融의 問題를 包含한 보다 廣範圍한 問題를 共同的으로 提起하기에 이르렀다. 開發途上國들의 要求는 國際經濟體制 自體부터 그들에 不利함을 指摘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오늘날의 國際通貨體制的 危機는 先進國「그룹」에 의하여 造成된 것임에도 不拘하고 그 結果로 開發途上國에 미친 被害는 매우 컸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主張은 1971年の 77個國「그룹」에 의한 「리마」(Lima) 宣言에서 부터 시작하여 1974年 9月の 第29次 IMF 總會에 이르는 各種 國際會議에서 反復되고 있다. 國際通貨體制的 改革에 關聯하여서도 國際流動性을 SDR로 創出하는 制度和 國際開發金融과의 提携를 開發途上國家들은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要請에도 不拘하고 前述한 바와 같이 SDR의 信認性을 念慮한 나머지 SDR의 創設과 開發金融과의 有機的 連結은 아직은 許容되지 않고 있다. SDR로 하여금 純粹한 信用創造擴大機能만을 遂行케 하고 國際間的 富의 分配機能은 別途 方案으로 이를 解決해야지 새로운 國際通貨秩序의 効率的인 運營을 期할 수 있다고 한편에서는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反하여 SDR의 創出과 그 配定이 지금처럼 IMF 「쿼타」에 比例해서 配定한다면 이것 自體가 差別的이며 衡平의 原理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처음 받는 SDR분만은 아무든 生産된 財貨의 뒷받침 없이 받게 되기 때문이며 이 方式을 그대로 取한다면 國際的인 富益富 貧益貧의 現狀은 深化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SDR과 國際開發金融과의 「링크」는 어떠한 形態로든지 이루어져야만 經濟的으로는 勿論 政治的으로나 國際社會의 衡平의 原理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그 「링크」의 方法은 IDA, ADB 등과 같은 國際開發金融機關에 一次的으로 配分되어 다시 開發途上

國으로 나누어 질 것으로 展望된다.⁽³⁾

이에 지난 29次 IMF 總會에서는 IBRD 와 IMF 合同으로 開發委員會를 設置하여 開發金融의 問題와 開發途上國에의 實物資源移轉問題를 다루게 하도록 했다.

1973年 10月の 中東戰爭을 契機로 國際金融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石油波動으로 「오일·달러」(oil dollar)의 產油國으로의 累積은 곧 國際流動性的 偏在를 말하며 그 일부는 產油國의 工業化에 所要되는 資本財, 原資材 등의 輸入需要로 餘他世界로 還流되겠으나 「오일·마니」全額의 還流에는 물론 限界가 있다. 利息을 追求하는 資本의 生理를 일찍부터 터득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랍」 石油商들이 남겨진 資金의 相當한 部分을 「유로·달러」(Euro-dollar)市場과 美國金融市場에 주로 短期資本으로 流入되고 있으나 그 大部分은 西歐의 先進諸國이 다투어 借入하는 財源으로 充當되어 經常收支의 赤字를 資本收支의 黑字를 대꾸는 形態를 取하게 될 것 같다.

問題는 國際金融市場으로 부더의 借入競争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非產油開發途上國으로서 先進工業國의 不景氣에 따른 輸出의 不振에 雪上加霜格인 原油價의 昂騰과 其他 主要輸入原資材價의 不安定性은 非產油開發途上國의 國際收支에 매우 큰 打擊을 받고 있다.

더욱 深刻한 問題는 先進主要國들의 孤立主義的인 政策이 國際金融面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國際開發協會(IDA)나 亞細亞開發銀行(ADB)등의 資金源泉이 枯竭되어 가고 있는 點이다.

1974年初 美國議會는 IDA에 대한 當初政府가 約束한 15億「달러」에 이르는 補充資金의 供與를 拒絕했으며 ADB 등 그밖의 公的 國際金融機關의 融資金의 逼迫性은 國際金融市場의 緊縮性과 比例하여 稀少해지고 있다.⁽⁴⁾

多幸히 지난 1月 17日에 「워싱턴」에서 열린 IMF會議에서는 250億「달러」의 先進國間金融援助基金의 設置에 合意하는 한편 이 基金을 OECD 24個國에서 각출하고 심각한 國際收支 困難에 處해 있거나 產油國의 集中攻略을 받는 通貨를 救하는데 使用하기로 하여 援助基金의 設置에 약간의 順통을 뜨게 되었다.

이 基金의 作動期間은 2年이고 適切한 經濟政策을 條件으로 貸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3) T.S. Park, "The Link Between SDR and Development Finance," *Portfolio—International Economic Perspectives*, Vol. 1, No. 6, Prepared for USIS by Dept. of Economics, University of Pittsburgh, 1974, pp. 7-11.

(4) Phillip Bawring, "No Credit Where It Is Due" i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83, No. 6, Feb. 11, 1974.

구체적으로 對開發途上國을 위한 IMF 「오일·퍼실리티」(oil facility)의 規模를 60億 「달러」로 하여 74年の 未使用分을 75年中에 使用하기로 하였다.

3. 世界通商秩序의 現實과 理想

國際通貨, 國際金融에 못지 않게 近隣窮乏化政策이 집요하게 그리고 꾸준히 追求되어 온 國際經濟의 한 重要한 部門이 國際通商部門이다. 1948年 自由無差別의 國際交易을 標榜한 가운데 지난 4半世紀의 世界通商秩序의 基幹을 이룩해 온 GATT도 또한 1970年代 初葉부터 어려운 試練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GATT體制를 그 間 庇護하고 支持해 온 美國이 1960年代中葉의 年 50억 「달러」 規模의 黑字國으로 부터 1971년에는 20餘억 「달러」의 赤字國으로 轉落하면서 自由貿易主義로 부터 이른바 公正·衡平主義(fair and justice)에 立脚한 貿易論者로 化身하여 輸出自主規制란 새로운 方式의 輸入規制를 創案하였고 1972年 드디어는 主要農産物 禁輸措置를 取하는 1970年代 最初의 資源民族主義의 實行者로 變貌하고 말았다.

둘째로는 GATT의 自由無差別貿易主義에 根幹이 되고 있는 原則의 하나는 一般最惠國 待遇인 바 그 間 너무나 많고 또한 強力하면서도 廣範圍한 例外的 特惠의 存在가 생겨 GATT 自體를 無氣力하게 만들고 있다는 事實이다. GATT의 最惠國待遇原則에 例外的인 一般特惠나, 關稅同盟, 自由貿易地域 등은 容認될 수 있으나 그것도 開發途上國一般特惠나 一部 小規模의 地域國家間的 關稅同盟이나 自由貿易地域에 局限되고 있다. 그러나 歐洲經濟共同體의 경우와 같이 特惠關係를 着實히 擴大하여 1973년부터는 英國 등 3個國의 參加로 이젠 그 特惠關係가 英國과의 聯邦關係下에 있는 나라를 包含할 때 56個國에 이르고 있으며 自由貿易地域은 歐洲大陸을 벗어나 地中海까지 廣域으로 擴大되고 있다. 原則上 例外的인 다른 한 地域特惠로서의 關稅同盟같은 것도 「베네룩스」(Benelux) 3個國에 局限되어 域內經濟活動을 振作시켜 이로써 域外와의 貿易을 더욱 活潑히 하고 相互間的 貿易增進에서 오는 利益增大를 期할 것을 想定해서의 最惠國待遇原則의 例外로 보아 주었던 것이다. GATT와 EC間的 法的 審査는 後者が 誕生한 1958年以來 아직도 未解決로 둔채 오늘날 擴大 EC의 地域特惠關係는 GATT加盟國 83個國의 過半數를 넘는 많은 나라들과 이루어져 GATT와 EC, 原則과 例外가 모두 主客이 轉倒된 感마저 없지 않다.

셋째로는 GATT가 지니는 理想的인 通商秩序중 根本的으로 흔들리고 있는 다른 原則의 하나는 自由貿易原則인 바 이는 各國의 財貨生産에 何等の 制約을 받지 않는 狀態를 想定하고서의 이야기나 資源枯渴現象과 더불어 惹起되고 있는 一聯의 資源의 稀少性 波

動은 自然 各國의 生産의 制約을 가져오고 이것이 앞으로 長期的인 趨勢로 굳혀질 때 GATT의 存立基盤인 自由貿易原則은 새로운 面에서 檢討되어야 한다.

이러한 國際通商秩序上的 理想과 現實間의 乖離에도 不拘하고 1973年 9月 GATT 閣僚會議에서는 이른바 「新國際라운드」(New International Round)의 開始를 뜻하는 東京宣言이 採擇되었다. 東京宣言은 貿易障害의 除去와 輕減을 통하여 世界貿易의 加一層의 擴充을 期하고 一般最惠國待遇原則의 再確認에 그 目標이 있다. 지난 4半世紀동안 GATT는 6차례에 걸친 關稅引下交涉을 행하였으며 이중 가장 最近것이고 成功的인 引下는 1962年에 시작하여 1967年에 끝을 본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로 工業品關稅의 平均 35%의 引下를 가져왔다. 그 間 交涉의 進歩는 매우 不振하나 新國際「라운드」가 GATT 加盟國은 물론 非加盟國의 參加까지 豫想되고 있어 交涉結果는 全世界的인 意義를 지니고 있다. 關稅引下以外에도 交涉對象으로서는 非關稅措置特定分野別交涉, 輸出規制가 不可避한 경우의 「세이프·가드」(safe-guard)條項 등이 包含되고 있다. 現在 通商交涉의 最大爭點은 美國과 EC間의 農産物貿易交涉으로 美國으로서는 工業品과 같이 農産物의 貿易自由化를 主張하는 反面 EC 諸國은 域內의 農業保護를 위한 共通農業政策을 追求하고 있어 農産品貿易의 特殊性을 強調하고 農産物貿易交涉은 이것만으로 農産物貿易交涉「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援助」보다는 「貿易」으로” 開發途上國을 도와 달라는 呼訴는 1974年 7月 現在 美國, EC諸國, 캐나다 등의 17個 先進國에 의한 開發途上國一般特惠는 그 實施年間이 日淺하고 一般特惠輸入의 比重은 아직도 보잘 것 없는 水準에 머물고 있다. 工業製品에 대한 一般的인 關稅率은 낮아졌으나 開發途上國으로 부터의 輸入品에 대한 關稅率의 低下는 相對的으로 硬直의이며 특히 加工度가 높은 工業製品일수록 先進國의 關稅에 의한 保護率은 높다. 더욱 開發途上國에 대한 一般特惠를 供與하는데 支拂해야 할 經濟的 代價는 雇傭機會面에서나 生産額으로 따져 極히 적은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⁵⁾ 앞으로 先進工業國에 의한 開發途上國에 대한 特惠「긴링」이나 그 適用範圍를 制限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보다 많은 未實施先進國의 門戶가 開放되어야 한다.

어떻든 앞으로의 GATT의 新體制는 自由無差別 一般最惠國待遇의 原則이 그 根本的인 理念으로 推進되는 가운데 各國의 極端的인 保護主義와 閉鎖的인 地域主義가 高潮되고

(5) J. M. Finger, "The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Impact on the Donor Countries," *The Bulletin of Economic Research*, Vol. 25, No. 1, May 1973, pp. 43-54. 美國의 경우 開發途上國特惠關稅로 상실케 된 雇傭機會는 總産業勞動力의 0.5%에 不過한 것으로 計測되고 있다.

있는 現實을 어떻게 調整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課題로 남아 있다.

III. 世界經濟運營上的 諸問題

오늘날의 國際經濟는 戰後의 經濟發展過程에서 그 制度的 혹은 構造的인 自己矛盾을 露出하기 시작하여 위에서 이미 論議해 온 바 있는 制度的인 여러 問題뿐만 아니라 運營面에서도 여러가지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그 첫째는 人口와 食糧, 工業化와 資源의 稀少性, 石油波動과 보다 廣範한 資源民族主義의 擡頭를 들 수 있으며, 둘째로는 1930年代의 世界經濟恐慌以來 처음 겪는 世界全般的인 不況現象이며, 셋째로는 거의 大部分의 資本主義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問題라 하겠다. 이밖에도 世界工業國을 괴롭히고 있는 公害問題든지 地球汚染, 人間生活의 環境保護問題, 國際的 그리고 國內的인 所得分布의 不公平性 등 여러가지 問題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위의 資源, 不況, 物價高의 세가지 問題에 局限하여 概觀해 보기로 한다.

1. 資源問題의 顯在化

73年の 中東戰을 契機로 「아랍」產油國들이 石油를 武器化하여 生産을 減縮하고 價格을 一方的으로 引上한 措置는 世界經濟에 큰 波紋을 던진 後 世界의 主要資源保有國들은 資源과 關聯된 組織을 形成하여 經濟的 結束을 強化하고 所謂 資源「내소날리즘」의 政策을 取하기 시작하였다. 卽 資源保有國들은 資源輸出國機構를 비롯하여 多者間 共通資源政策을 實行하기 위한 聯合組織體를 結成하고, 諸般協商의 主導權을 漸次 資源保有國이 確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資源「내소날리즘」으로 資源保有國들은 從來 繼續되어온 資源需要의 增大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收益을 더욱 增加시키기 위하여 資源産業의 國有化나지는 資本과 經營參與의 範圍를 擴大하고, 國內에 進出한 外國企業들에게 自國의 開發을 위한 投資增大를 要請하는 한편 課稅의 對象이 되는 價格決定에 直接 關與하고, 資源開發에 있어 自國에서의 加工度를 높이고 努力하고 있으며, 이러한 一聯의 資源「내소날리즘」을 開發途上國과의 協調와 團結을 통해 達成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資源「내소날리즘」은 最近에서야 發生된 것은 아니며 史的 背景을 보면, 1917年の 「멕시코」憲法이 「地下資源이 國家의 所有物」이라는 資源主權思想을 規定한 以後, 1962年 UN 總會에서 「天然資源의 恒久主權」에 대한 宣言이 採擇된 바 있으며 資源은 資

源保有國의 國家發展과 國民福祉의 向上을 위해 探查, 開發, 處分되어야 한다는 것이 明文化 되었다. 한편 開發途上國들은 同宣言을 더욱 進展시켜 1966年의 第21次 UN 總會에서 資源의 開發, 販賣와 外資에 의한 開發利益에 있어 保有國의 持分(share)을 自由로 이 擴大할 權利를 갖는다는 決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思想的 背景에 바탕을 두고 開發途上國들은 石油의 武器化를 契機로 先進國의 經濟的 從屬을 벗어나기 위하여 점차 資源「내소날리즘」을 強化하여 나가고 있다.

이제 資源「내소날리즘」의 現況을 品目別로 보면, 1961年 9월에 設立된 OPEC(石油輸出機構)가 原油 公示價格과 利權料, 所得稅, 生産量 調整을 決定하는 機構로서 資源「내소날리즘」의 嚆矢를 이룬 後 아랍國家들만으로 構成되어 石油을 武器化, 加盟國間的 共同投資擴大를 가장 効果的으로 實施한 OAPEC (아랍石油輸出國機構)가 1918年 1월에 設立되었고 그밖에도 아랍諸國은 「테헤란」(Teheran)協定, 「제네바」(Geneva)協定, 「리아드」(Riad)協定 등을 통하여 石油의 資源「내소날리즘」을 貫徹하여 왔다.

한편 銅部門에서는 칠레, 잠비아, 자이레, 우간다 등을 會員國으로 하는 銅輸出國協議會(CIPEC; Conseil Intergovernmental des pays Exportateurs de Cuivre)가 1967年 6월에 設立되어 最近에 들어서 銅價格의 決定과 開發에 積極 參與하기 시작하였고, 「보기사이트」에 대해서는 1974年 3월에 IABP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auxite Producing Countries; 國際「보오키사이트」生産國聯合)이 오스트레일리아, 가나, 자마이카를 中心으로 設立되었고, 鐵鑛石의 IOPO(鐵鑛石生産者機構), 생고무의 NRPCA(天然고무生産國聯合), 朱錫의 ITC(國際朱錫理事會)가 設立된 바 있다. 以外에도 原木과 羊毛, 커피 등에서 資源「내소날리즘」이 強力히 擡頭되고 있으며 아프리카地域의 産業國有化 擴大傾向과 中南美諸國의 外資依存脫皮를 위한 諸般努力 등이 最近들어 注目을 끌고 있다.

한편 資源「내소날리즘」으로 主要原資材의 價格은 1972年 下半年부터 上昇勢를 보이기 시작하여 2年동안 昂騰勢를 持續하고 1974年 3월에는 最高絶頂에 達함으로써 30年代의 世界的인 大恐慌期과 50年代의 韓國動亂時에 經驗했던 것보다 더욱 심한 騰貴現象을 나타내었다.

即 代表的인 國際商品指數로 알려진 「로이타」指數는 69~72年 6月까지 500~550水準의 安定勢를 維持하였으나, 73年 7월에는 1,000을 돌파하였고, 74年 2月 26日에는 1,479.7을 記錄하여 史上最高水準을 示顯하였다. 이와 같은 國際原資材價格의 昂騰要因으로는 原資材需要의 繼續된 增加以外에도 資源「내소날리즘」에 便乘한 世界的인 「에너지」波動으로 假需要가 急增하고, 「인플레이」의 深化와 國際通貨不安에 따른 換物投機의 增大에 起因된

것이다.

그러나 74年 3月을 頂點으로 옥수수·原糖, 大豆를 비롯한 一部 農產物과 「알미늄」 등의 非鐵金屬을 除外하고는 다시 下落勢로 反轉되었다. 이들 品目은 需給의 逼迫과 不透明한 供給展望을 背景으로 異例的인 上昇勢를 보여 餘他資源의 價格動向과 현저한 對照를 이루어 3月以後의 國際原資材價格動向은 價格의 下落과 上昇이 併行하는 兩極化現象을 보였다.

그러나 74年 11月에 들어서면서 부터 「알미늄」, 大豆, 옥수수 등이 深化되는 國際景氣의 沈滯에 따라 다소 누그러지기 시작함으로써 大部分의 主要原資材價格은 下落勢로 完全히 反轉되었다. 이것은 國際景氣의 後退와 「인플레이션」收拾을 위한 總需要抑制政策 追求에 基因한 購買力의 激減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써 短期的인 限界需要가 價格을 決定하는 要因은 된다하더라도 長期的으로 價格은 一定한 需要水準下에서 正常利潤을 包含한 平均生産費水準으로 떨어진다는 原論的인 論理가 適用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石油, 原糖, 「알미늄」, 大豆, 옥수수 등은 下落局面에 접어들긴 했어도 아직 높은 價格水準에 있고, 쌀, 小麥, 朱錫 등은 散發的인 價格의 起伏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74年 下半年부터 深化된 世界的인 不況이 점차 本格化하고 있음에 따라 主要原資材의 需要는 激減하고, 이에 銅, 原木, 生 고무 등 生産國들은 需要激減에 따른 價格下落을 더 이상 深化시키지 않기 위해 生産國 價格「카르텔」의 形成을 試圖하고 있으며 一部品目에 대해서는 市場機能에 의한 價格決定이 이루어지는 등 主要資材에 대한 價格體制는 昏迷相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價格豫測은 極히 不透明한 狀態에 있다.

不調를 除外한 其他資源市場의 最近現象은 供給者市場(seller's market)에서 需要者市場(buyer's market)으로 市場의 性格과 需給構造가 顛倒되는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資源保有國들의 政策動向과 世界景氣의 餘波에 따라 價格形成이 極히 不安定하고 一部品目에서는 所要量의 確保自體가 問題되는 資源問題의 深刻性이 再現될 餘地도 充分히 남아 있는 것이다.

2. 世界不況의 深化

요즈음의 世界經濟事情을 두고 識者들 間의 論議의 焦點은 1930年代의 世界的인 大恐慌의 再發與否에 있지 景氣의 沈滯相을 否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現下의 世界經濟의 昏迷相이 1930年代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보는 主要點은 우선 世界的 不況의 先導現象으로서 世界的 通貨異變을 들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物資의 供給力에 革

命的異變이 일어나고 있다는點과 이에 對處하는 各國의 經濟政策이 個別國家로서는 妥當하나 全體的으로는 그 解決을 얻을 수 없는 構成的 矛盾을 招來하고 있다는點 등이다.

1973年 下半期以後 氣象異變에 따른 世界的 農產物生産의 不振과 함께 農產物價格의 高騰現象과 其他 主要 自然資源供給의 稀少性, 決定的으로는 石油波動으로 因하여 世界 景氣는 激甚한 沈滯相을 免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世界的 各國은 大部分의 경우 財政收支均衡의 理論에 얽매어 金融緊縮, 財政緊縮政策을 强行하는 한편 輸出은 늘리고 輸入은 줄이려는 保護主義的인 貿易外換政策은 結局 景氣의 下降을 오히려 相互 激化・沈滯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다.

그러나 注目되는 事實은 1930年代의 世界不況은 通貨「디플레이션」이 先行한데 비하여 1970年代의 것은 通貨「인플레이션」이 先行되어 왔다는點이며 前者의 경우에는 資源供給力의 過利化에 따른 價格暴落이있음에 反하여 最近에는 資源供給力의 不足化로 價格暴落이 뒤따랐다는點에서 從來의 景氣沈滯와는 全然 異質的인 새로운 事態로 進展되었다.

이와 같은 最近의 世界的 不況은 構造的인 面에서 性格을 달리하고 있어 經濟全盤活動의 實質的인 下落이라기 보다는 成長의 鈍化라는 不況의 新樣相을 보이고 있다.

지금 世界景氣는 새로운 樣相으로 다음과 같은 構造的 變化를 隨伴하면서 長期的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⁶⁾ 첫째 産業雇傭의 構成은 不況이 닥치면 雇傭을 大幅減少하는 産業이 經濟全盤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작아졌고 이에 反해서 不況時에서도 成長을 계속하는 産業의 比重이 1930年代보다는 커지고 있다. 둘째 이럼에도 不拘하고 失業率의 增減幅이 擴大되어 美國等에서는 不況의 程度가 가벼워졌는데도 不拘하고 失業率은 減少되지 않고 있다는點이다. 또한 美國等 先進國의 都賣物價는 最終需要的 變化에 대한 反應의 幅이 줄어들어 繼續的인 上昇傾向이 需要減退에도 나타나고 있다.

세째로는 金融市場이 景氣變動에 대해서 더욱 敏感해져, 最近의 不況回復期에 金利의 變化가 前의 不況回復期보다는 훨씬 그 幅이 커졌으며 따라서 證券時勢의 變動은 不況의 深刻度를 誇張하여 反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世界景氣는 不況의 規模가 國際性을 띄고 있으며 특히 景氣「사이클」의 위축은 世界的인 餘波가 深刻하게 나타난다는點이다.

따라서 景氣「사이클」에 대한 各國의 現況은 물론, 通貨關係, 對外貿易關係, 資本移動 등이 迅速히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最近 不況의 새로운 樣相은 經濟活動의 實質的 下落期인 不況期

(6) Geoffrey H. Moore, *AER*, May 1974

가 速度는 줄었고 期間은 짧아졌으나 그 程度도 덜 심해졌으며, 따라서 꾸준한 成長率이 一時中斷되는 不況은 經濟全般活動의 實質的 下落이기 보다는 成長의 鈍化에 不過한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3. 國際的인 「인플레이션」의 蔓延化

73年 下半期부터 主要先進諸國에서 계속된 好況으로 經濟構造面에서 累積되어온 「인플레이션」의 壓力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石油, 食糧을 위시한 主要原資材價格의 急騰과 主要諸國의 變動換率制의 採擇, 貨金引上에 따른 「코스트푸시」(cost-push) 要因 등이 加勢하게 됨으로써 各國의 「인플레이션」 現象과 交易를 통한 「인플레이션」의 國際間的 蔓延化現象은 加速化되었다. 이와 같은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은 더욱 國際經濟秩序를 어지럽게 하는 根源이 되고 있다.

이에 世界各國은 저마다 緊縮政策을 驅使하여 「인플레이션」 抑制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重要한 點은 美國이 다른 여러나라의 「인플레이션」 抑制에 決定的 役割을 한다는 事實이다. 즉 美國이 世界貿易에서 占有하는 比重을 볼 때 美國의 「인플레이션」 抑制 成功如何는 다른 나라의 成敗를 左右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抑制策으로는 通貨供給量의 統制란 한가지 方法만이 使用되었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政府의 役割을 줄이고 豫算의 均衡을 維持하여 通貨供給을 適正水準에 抑制하면 萬事が 잘 될 것이라는 것이 普通通說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資本主義經濟는 2次大戰前과 比較하여 볼 때 여러面에서 많이 달라졌다. 특히 20世紀 後半期以來 나라마다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製品市場의 獨寡占化와 過去 어느 때보다 強力해진 勞動組合은 物價의 上昇操作을 容易케 해주는 構造的인 要因으로 指摘되고 있다. 勞組가 賃金を 올리고 이어 引上된 勞賃은 生産原價를 그만큼 높이고 獨寡占大企業體는 이어 製品價格을 引上하고 이것은 다시 生計費上昇을 招來하고 다시 勞組를 통한 貨金引上의 壓力은 加重되어 物價와 貨金引上의 惡循環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또한 政府와 政府豫算은 經濟生活에 큰 影響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從來의 方法으로는 「인플레이션」 抑制을 期待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昨今の 「인플레이션」을 抑制하기 위해서는 緊縮財政金融措置를 取함과 同時에 貨金과 製品價格의 相互上昇을 차단하는 한편 國民은 貨幣의 將來價値에 대하여 信念을 가지고서 貨幣貯蓄을 換物化하지 않도록 하는 諸般措置가 取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重要한 것은 昨今の 世界經濟體制를 勘案할 때 「인플레이션」의 抑制을 위한 各國의 總

需要抑制政策이란 唯一한 方案에만 얽매이게 될 때 全體의인 世界經濟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음은 물론 總需要抑制方案 한가지에만 依存하다가 그 執行은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과 失業의 두가지 固疾의인 問題를 모두 解決할 수 없는 危險性이 있다.

아무래도 傳統의인 解決方法과는 다른 「인플레이션」對策이 講究되어야 하며 그것은 어떤 形態이든 市場介入 내지는 統制政策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非自由放任政策은 한편으로는 所得政策의 方向과 다른 한편으로는 有效競爭의 原理를 導入한 產業組織論的인 規制方向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들 두 方向으로 在來의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은 보다 選別的이고 細部的으로 調整・執行되어야만 된다고 본다.

IV. 結 語

世界經濟라는 大海속에 一葉片舟에 不過한 것으로 比喩되는 우리나라 經濟의 前途는 선고 樂觀을 不許한다고 본다. 특히 激浪이 일고 있는 大海속의 一葉片舟의 航路는 앞으로 더욱 険峻한 前途임에 틀림 없다. 國際通貨改革의 基礎가 다져지고 Oil Money의 還流에 대한 妥協의 成立이라든지 一部 先進國의 景氣振作策 등 밝은 曙光이 비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하늘은 大部分 먹구름으로 덮혀 있다.

거듭 強調되어야 될 말은 賦存資源이 없는 가운데 많은 人口를 거느리는 一葉片舟의 航路를 激浪속의 被害를 줄인다고 自給自足的인 autarky 經濟로 指向하는 孤島로의 極端的인 航進은 오히려 乘船者의 生命을 危殆롭게 한다고 본다. 이럴 때일수록 開放主義政策이 더욱 強調되며 보다 正確하고 科學的 大海의 情勢를 把握하여 激浪에 便乘하는 航進法이 重要視된다. 어리운 國際金融과 海外輸出市場이지만 積極的이고 伸縮性있는 政策으로 對處한다면 片舟의 航路만은 찾을 길이 있다고 確信한다.